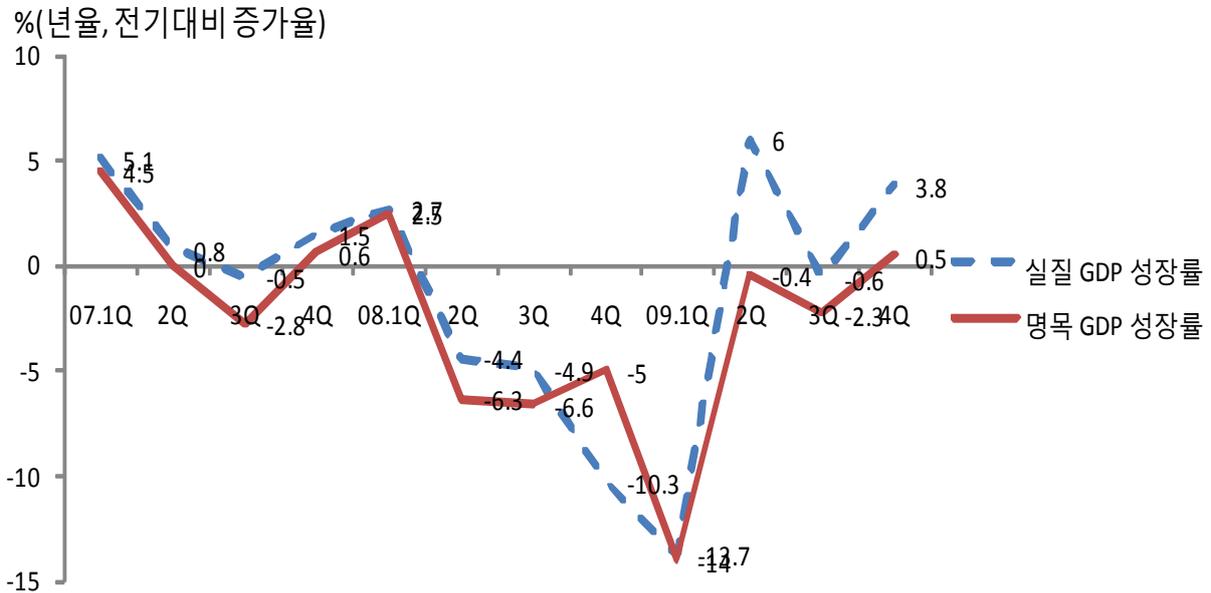


일본, 수출주도형 경기회복 움직임 가시화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재현하고 있음. 이는 일본경제에서 아시아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함을 의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기업간 경쟁격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됨.

- 일본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, 수출의존적 경제성장 패턴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됨.
- 일본의 수출의존도(명목 수출액/명목 GDP 비율)는 1990년대까지 10%선에서 유지되었으나, 2005년 4/4분기부터 15%를 넘어섰고 2008년 3/4분기에는 19.7%로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.
 -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수출급감으로 수출의존도가 하락('09년 1/4분기 11.0%)하였으나, 2/4분기 이후에는 11.9%→13.7%→13.5%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
 - 한편, 2009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-5.2%('08년: -1.2%)를 시현하였으나, 일본 국내에서는 연율 환산치의 전기대비 GDP 증가율을 근거로 2009년 2/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도 감지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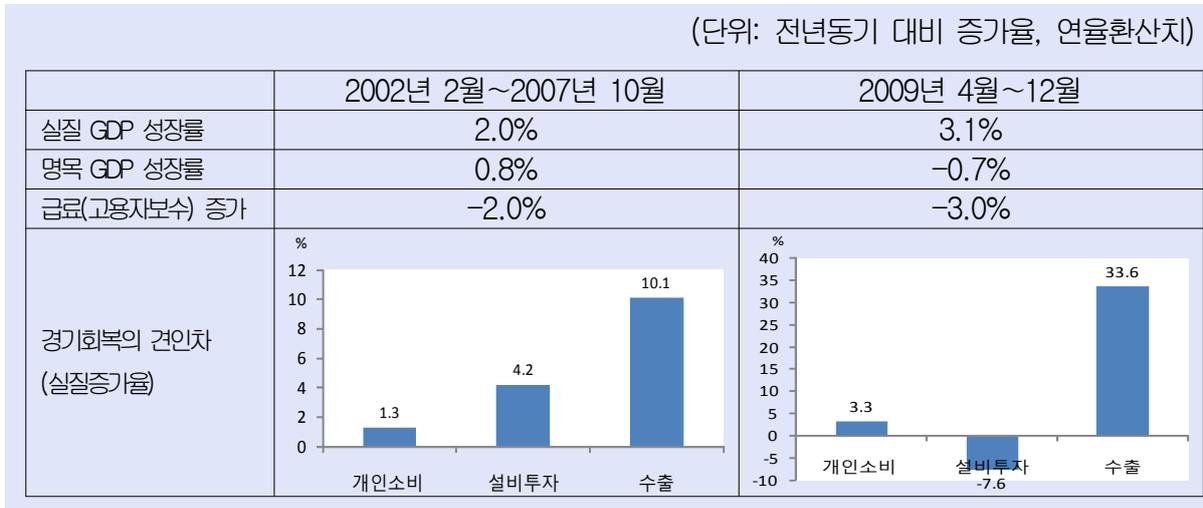
<그림 1> 일본의 GDP 성장률 추이('07.1분기~ '09.4분기)



자료: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(SNA) 관련 통계

- 2009년 4월 이후의 경기회복은 이전의 회복 국면('02.2월~ '07.10월)과 마찬가지로 수출주도에 의한 것이지만 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까지는 연결되지 못하는 공통점을 지님.
- 지난 2002년 2월~2007년 10월에는 명목고용자보수가 2%(전년동기 대비, 연율환산치의 평균) 감소하였고, 2009년 4월 이후에도 실질수출 증가율은 33.6%(전년동기 대비, 연율환산치의 평균)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, 명목 고용자보수는 3% 감소함.
- 특히,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기업의 과잉 설비·고용 문제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.

<표 1>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경기회복 국면 비교



자료: 일본경제신문, 2010.3.29일자

- 일본경제가 수출주도형 성장패턴을 유지할 경우, 일본 기업에게는 아시아 신흥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이나, 아시아 지역에서 한일 기업간 경쟁격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우리 기업의 현지화 전략 강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<참고자료>

内閣府, 국민경제계산(SNA) 관련 통계, <http://www.esri.cao.go.jp/index.html>
 日本經濟新聞, 2010. 3. 29일자